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81 호 현대불교 21
2022년 3월 30일(음 2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죽고 사는 걸 개의치 말고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

여기 나와서 한마음 법을 배우고 가는 분들에게 바로 생각을 하시게끔 항상 얘길 해 드리지마는 오늘부터 더 확고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사셨고 그 후에도 사셨고 지금도 사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그 방식에 의해서 관습이 돼서 영 놓으려야 놓을 수가 없이 찌들고 겹겹이 눌어붙은 거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눌어붙은 거를 다 제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와 같고 어떤 땐 나도 짜증이 날 정도로 화가 일어나요. 진짜 가슴에서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슬픔에서요. 너무, 나와 더불어 가엾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집이 때에 따라서는 이 병 저 병, 이 애고 저 애고를 가지고, 다섯 식구가 사는데 네 식구가 다 그러니 한 사람이 배겨 낼 수가 있나요, 또. 이런 것도 그렇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람은 이렇기도 해요. 전자에,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무당 노릇을 안 하면 식구가 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로부터 그 습과 착과 타신을 믿는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못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 줄창 얘기해 드리지만 그 애고라든가 그런 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살림살이, 가정, 내 삶,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유전성이나 영계성, 아까 얘기하던 무당 노릇을 안 하면 식구가 다 그냥 입원을 하게 되고 아프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노라고 그랬는데, 원주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처리해 준 것은 바로 그분이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거기다 다 맡겨 놨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됐습니다. 그런 걸 다 없애고 보니까 자식들이 그때서야 시집 장가를 가는 데 걸림이 없었답니다. 그게 좀처럼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 영계성이란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고, 유전성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 뿌리와 자기 뿌리가 동일하게 엮어져 간다는 거, 내가 항상 얘기하듯 "저 전기가 가설이 돼 있는 데는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 즉 어머니다 아버지다, 자식이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인과를 가졌다면 선덕이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 악행을 했다면 악행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가정 살림살이를 하면서, 즉 말하자면 지금 사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본다면 지금이 과거죠? 그래서 현실로 무명을 쓰고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미래자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삼독 속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이 소립니다.

그 삼독을 제거하려면 여기에서 관법을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관법을 하되 묘하게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걸 개의치 말고 해라 이거야. 잘되고 못되는 걸 개의치 말고 해라, 믿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믿는데 잘되든지 안되든지 내 자식이지, 잘되면 내 자식이고 못되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부모지, 잘나면 내 부모고 못나면 내 부모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 주인공이라는 것은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진화시켜 가면서 온 바로 선정이니까요. 선정의 근본이니까요. 그러니 잘되면 '주인공,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고, 안되는 거는 '아이고! 내가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안돼?' 이러고 등한시하게 되죠. 그게 등한시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걸 개의치 말고 믿어라 이러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믿는 거를 잘되면 믿고 안되면 안 믿는 거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믿으면 잘된다는데 왜 나는 안되나? 안되는데 그까짓 건 믿어 뭘 해?'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안 되든 되든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자기를 이끌고 가는, 진화시키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장본인의 근본이 바로 자기한테 있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자부처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가운데에 중생이 있다. 이 내 몸속에 의식들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있죠? 내 마음이 부처라면 그 육신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딴 사람입니까, 어디? 그 한 사람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끌고 다니기 위해서 모든 의식들이 작용을 해 줘야 다니죠. 그러니 아주 심사숙고해서 진짜로 믿어야 한다.

첫째, 믿어야 한다. 둘째는 믿는 반면에 안 되는 거는 잘 생각을 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거, 응? 과거로부터 이렇게 끌고 가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진짜로 믿는 겁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진정으로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고, 셋째는 모든 것이,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 자식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상대가 잘못해서 아주 원망스럽고 그렇더라도 상대를 원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증오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라 이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받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깡통이기 때문에, 똑같은 넝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끔 자기 탓이지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라. 악행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악행을 하면 악행이 오고 선행을 하면 선덕이 온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그와 같이 콩은 콩끼리 만났고 팥은 팥끼리 만났기 때문에, 당하는 놈과 그렇게 하는 놈이 없으면 당하질 않게요? 그럼 고통이 없게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지어 놨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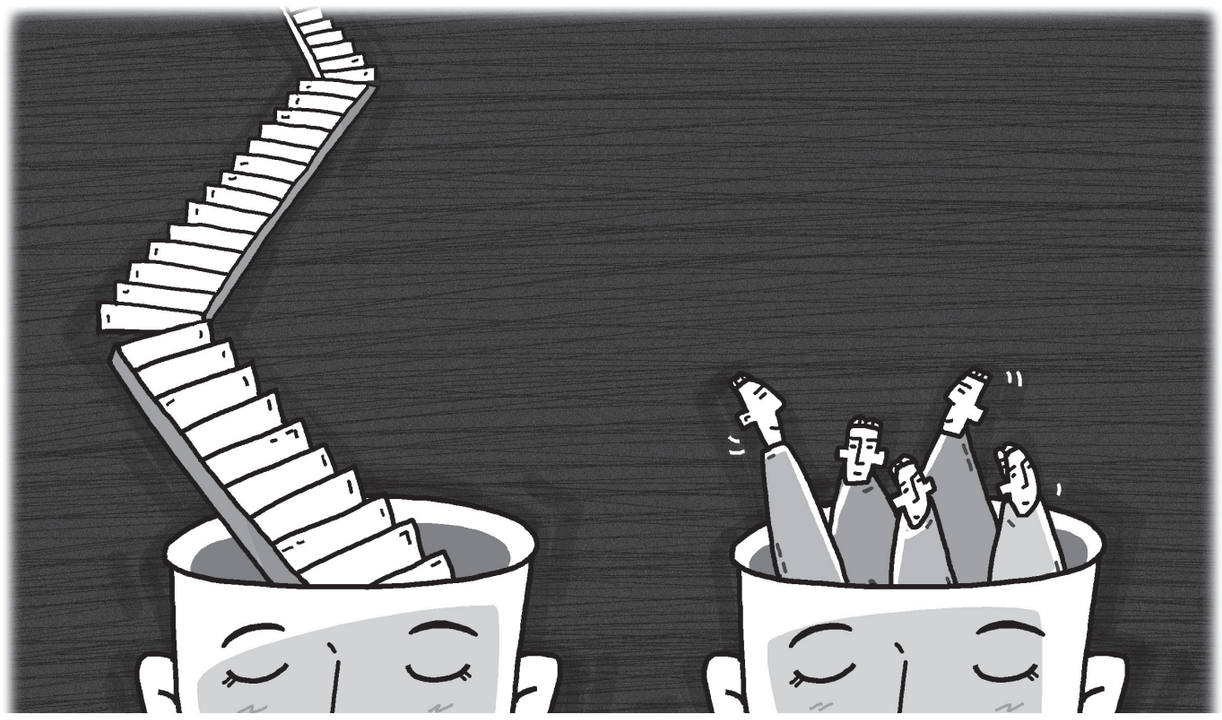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세상천지를 다 보세요. 넓게 보세요. 넓게 보신다면, 항상 내가 얘기하죠? 상점에 가도 끼리끼리 놔져 있고, 사람들을 봐도 끼리끼리 살고 있고, 하하하…. 산은 산대로고 물은 물대로란 말입니다. 천차만별이 다 끼리끼리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다섯 식구가 살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살아도 자기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이렇게 업보가 많은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왜 저놈은 저렇게 속만 썩이고, 저 애는 왜 저렇게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애를 쓰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과거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같이 만난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박씨에서는 박이 꼭 나고 호박씨는 호박을 이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천체가 다 팔만대장경입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다. 자기가 벌여 놓고 자기가 거둬야 합니다. 선행을 하면 선덕이 오는데, 선덕을 하고 가다가 보면 악행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 가르친 뒤에 끄트머리에 가서 "악과 선을 다 놔라." 이랬어요. 선덕을 하게 되면 악행도 하게 되고 악행을 하게 되면 선덕도 하게 되니까, 이 양면을 다 놔야 그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길로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길과 가는 길을 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셋째로, 자기가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묘미 있게,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이러란다고 그냥 고것만 또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서 마음을 발전을 시켜라 이겁니다. 내 마음은 스스로서 발전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넉넉하고…. 놓을 때도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그냥 한생각 내란다고 그냥 생각을 좋게 해서 놓는 거는 놓는데 그 시기가 익어지면, 익어지면 그대로 아주 생각이 상쾌하게 그냥, 그냥 저절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들이 그 관습에 젖어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요것도 걸리고 조것도 걸리고 죄 걸립니다. 왜 걸리는 줄 아십니까? 모두 그 습들을 떼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 이사를 가려면 날을 봐야 간다는데….' 요런 관습이 있기 때문이고, '날짜를 봐야만 산소도 만진다더라.' 또 '날짜를 봐야만 장을 담

☞ 22면으로 계속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한마음연구』발간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투고시기** : 연중 접수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선발인원** : 0명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